

# 광주·전남 대학생 ‘서울 원정 알바’ 러시

### 등록금 마련하고 유명학원서 영어 공부 ‘일석이조’ 숙식비 등 지출 부담에 한숨도...신중히 선택해야

유럽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대학생 고혜련(여·2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방학 기간(3개월)동안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고씨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 원정’을 다닌지는 올해가 3년째. 그는 해마다 커피숍, 피부와 병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대학 등록금에 보탬다. 올 여름 방학에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 고씨는 출근 전 아침 6시 동대문구의 한 토익학원을 들러 강의를 듣는다. 그는 “유명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쌓고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행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래도 저는 서울에 친척집이 있어 주거비 지출은 없지만 서울에 친척 등이 없는 학생들은 고시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가 여름 방학 시작과 함께 광주·전남 대학생들의 일명 ‘서울 원정 알바’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광주·전남 대학생들은 지역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한정된 데다 다양하지 않아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서울로 ‘알바 원정’을 떠나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 마련도 하고 유명 토익학원에 다니며 취업 스펙을 쌓고 최신 취업 정보를 취득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알바 원정’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 졸업반 양지선(여·24·광주시 서구 영주동)씨는 서울 양재동의 월세 45만원

**지역대학생들 왜 서울로 몰릴까**  
‘20대·방학·주 5일 근무’ 조건 채용포털에 검색해 보니

**광주 일자리 31개  
서울은 370개나**



짜리 고시원 방에 머물며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방학이 되면 토익학원이 밀집한 강남역 인근의 고시원에는 타지역 학생들의 입주가 급증, 고시원 방은 동이날 지경이다. 양씨는 “백화점의 류 매장에서 알바를 통해 양씨가 받는 돈은 한 달에 120만원. 방세 50여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기도 빠듯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토익 학원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현재 채용포털 ‘알바천국’에 ▲광

주 ▲20대 ▲방학기간(1~3개월) ▲주 5일 근무를 ‘조건’으로 설정해 검색한 결과, 총 31개의 일자리가 나왔다. 같은 조건으로 서울에서는 일자리 370개가 올라와 광주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앞서 ‘알바천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최근 1년 대학가 아르바이트 자리 상위 50위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이 23개 대학가(46%)로 가장 많고 경기 9곳(18%), 인천 6곳(12%), 부산 5곳(10%), 대구 3곳(6%) 순이었고 광주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 같은 기간 대학별 아르바이트 자리는 서울 건국대가 7만6771건인 반면 전남대는 1만 1212건에 그쳤다.

김일승(35) 강남아이익훈어학원 강사는 “대학가가 방학에 돌입하면 지방 학생들이 대거 서울로 몰리고 있다”면서 “지방 학생의 경우 서울로 와서 비교적 쉽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토익 학원에도 다니면서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여고생들 화재 대피 훈련** 16일 광주 경신여고에서 열린 화재대피 및 소방훈련에서 학생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개인병원 원장이 약국 운영 수십억대 부당이득 의혹

**건보공단, 경찰에 수사 의뢰**  
약사는 “말도 안된다” 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약국을 운영·관리한 의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광주시 남구 모 이비인후과 원장 C(42)씨와 같은 건물 1층의 약

사 J(여·78)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를 했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에 따르면 약국은 면허가 있는 약사가 개별적으로 설립·운영해야하는데, 건물 3층에 자리한 이비인후과 원장이 월급 약사를 고용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국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수사 의뢰서를 통해 “해당 의

원은 7년간 월급 약사를 두고 서류상으론 문제없이 약국을 개설·운영해 34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로 해당 병원과 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약국에서 거둬들인 매출 34억원을 부당이득 금액으로 보고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약사와 약국 종업원은 경

찰 조사에서 “병원 2층엔 지과, 3층엔 이비인후과가 있고 1층에 약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약사인 내가 병원 원장에 예측돼 월급을 받고 약국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해온 공단 측의 자료와 해당 약사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조만간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로 지목된 이비인후과 의원 원장을 불러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진도 주민들, 실질적 생계지원 대책 호소

**범군민대책위 국회 방문**  
세월호 특별법 등 건의문 전달

세월호 대참사 여파로 특산물 판매와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부딪친 전남 진도 주민들이 “진도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4일 결성한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세월호 실종자 수습에 온 힘을 쏟길 바란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제로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범정부대책상황실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에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진도군민 피해 보상 및 지원 건의문’

을 전달했다. 세월호 대참사로 현재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여름철 관광특수가 사라졌다. 낚시집, 특산물, 식당 등 상가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전복, 멸치, 다시마 등 각종 특산물이 반쯤 되거나 반값에 거래되고 민박, 펜션 등 영세 상가는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도 진도 지역경제를 걱정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군은 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전남 “정부는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비리 의혹 직위해제 전남대병원 교수 무혐의

**광주지검, 불기소처분**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중범)는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직위해제된 전남대병원 A교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의뢰기기 업체 측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정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범의(배임수재)에 대해 학술대회 경비를 선의로 후원받았고, 실제 돈은 공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봤다. 의뢰비 일부로 대출이자를 갚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A교수가 주도해 개인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고 사재 8000만원을 출연해 산학 협동연구기관을 설립·폐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동기금을 지원하기로 스타트업회사에서 결정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교수는 대학본부 측의 직위해제 조치 등과 관련해 지난 15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부터 A교수와 마찰을 빚은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 돈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객선에 신발 벗어둔 채  
남녀 2명 사라져**

남녀 승객 2명이 제주-목포행 여객선에서 갑자기 사라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밤 10시20분께 제주발-목포행 S여객선을 타고 가던 승객 황모(59·대전시)씨와 남모(여·67·서울시)씨 등 2명이 사라져 S여객 측이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5층 갑판 난간에선 황씨 등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 두 켤레가 발견됐다. 5층 갑판은 일반인 출입통제구역

으로, 갑판과 연결되는 출입문에 30cm 길이의 철제 핀이 항상 꽂혀 있었으나 이날은 풀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승선한 뒤 5층 객실에 머물렀으며 객실에선 가방 등 이들의 소지품이 발견됐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제주도에 요양을 다녀오던 길이었으며 남씨는 뇌혈관 질환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해상으로 투신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 중이다. 또 경비정 등 45척을 투입,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30대 여성이 남성 트랜스젠더 고용해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 트랜스젠더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여성 등 6명이 경찰서행.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업무 박모(여·38)씨 등 2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인동 A모텔

등에 거주하면서 정모(22)씨 등 남성 트랜스젠더 4명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시간당 13만 원의 화대를 받았다는 것. ○박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트랜스젠더 남성 모집 광고를 내는 한편 화원가입자들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성매매를 유도.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p><b>근린시설 ▶ 수익성 물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 1094㎡, 건 4489㎡) 감정가 41억6, 최저28억화정동 금호월드 옆</li> <li>·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가11억7, 최저5억2 동구 수기동 시내중심지</li> <li>·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780㎡, 건1992㎡) 감정가24억7, 최저24억, 8차선 도로점 분사사옥</li> <li>·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대1735㎡, 건23.3㎡) 감정가30억, 최저21억, 대형마트 도시형 주택</li> <li>·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대951㎡, 건2652㎡) 감정가26억, 최저11억 주택적합 분사사옥</li> <li>· 무안군 해제 근린시설(대578㎡, 건308㎡) 감정가11억3, 최저3억2, 투자적합</li> <li>· 순천시 장천동 근린시설(대423㎡, 건1738㎡) 감정가12억, 최저6억6, 순천터미널 옆</li> <li>· 화순군 능주 근린시설(대879㎡, 건1447㎡) 감정가10억, 최저4억6, 투자적합</li> <li>· 영광군 법성 근린시설(대3658㎡, 건4309㎡) 감정가34억, 최저9억1, 대형사우나</li> <li>· 광양시 봉정 근린시설(대31976㎡, 건792㎡) 감정가40억, 최저18억, 전원지 글포장</li> <li>· 목포시 용당동 근린시설(대221㎡, 건866㎡) 감정가6억6, 최저2억3, 상가적합지</li> <li>· 장성 성계 근린시설(대1068㎡, 건631㎡) 감정가2억5, 최저1억7, 전원 상가지</li> </ul>	<p><b>오피스텔 및 특수물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li> <li>·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li> <li>·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li> <li>·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li> </ul>
--	---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실 분**  
상가, 대지, 근린시설 주택, APT, 전문취급함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010-6832-9700 062)512-8080

**신축원룸(용봉지구) 신축원룸(전대2분)**

매가1억8천 (보2억 용3억)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21개(1층 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원룸(3억~20억) 다양 있습니다.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7층사우나) 상가매매(수익성상가)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북구 우산동 구호전 앞 무등 정맥사당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간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첨단상가건물 8층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앞 1층상가 200평 2~8층 룸58개

월수익 2500만 매가 35억

최고급 오피스텔 룸 완비

①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울빌딩(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투시,모아알가사 상가) 매가3억5천5천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②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 (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 (롯데마트 옆, 서해남군민 쪽) 매가 2억5천5천2천 용 120 용9천)

③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8층중 2층) 62평 부영APT) 매가1억7천5천 용1천70 용9천)

④나주시 상명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 (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⑤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①병천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 운안역 1번 출구 2번(울수리 전체제출 신규교체,임대완료,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200 용27 용1천 ②12평 매가3천5백200 용30 용1천

②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 (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8천 월인가 - 1억5천(용 6천가)

③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 (사무실(테라미)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월인가 - 1억2천 (즉시임주가 가능)

④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립)6층롯데마트 동쪽근로 위치 매매가적 8천 ②10평(수립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가 5천만원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형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사채됨 매가 3억1천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나주 삼영동(2층 건물)

나주 영강초교 앞 2층 상가 대지 130평 주택 2층 200평 매가 1억9천

월 보증금 2천 월 150만원

여수 아파트매매

35평형(여수 남산동) 매매가적 1억3천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